

예배가 무엇인가? 민수기 28:1-8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worship)라고 한다. 그 정확한 개념은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의식을 뜻하며,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2)

나의 헌물, 내 화제물 이라는 말은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본절에서 '내' 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물은 속죄의 수단이지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누가복음 7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잡수실 때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눅 7: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도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도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도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 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예물은 바리새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여인의 눈물과 사랑이었습니다.

2.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다.(3,4)

3-4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숫양' 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흠 없는 동물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여러 곳에 다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시 101:2에는 '완전한', 레 1:3에는 '흠 없는', 욥기 36:4에는 '진실한', 잠언 28:10에는 '성실함' 등으로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므로 흠 없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 향기로운 냄새이다.(6)-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6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화제를 통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냄새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상을 통해 드러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들이 드린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주 목적입니다. 이 만남의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23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